

# ‘復讐說 類型’의 傳承樣相과 小說的 變容\*

정준식\*\* · 이헌홍\*\*\*

## 차례

- |                        |                        |
|------------------------|------------------------|
| I. 들머리                 | IV. ‘복수설 유형’의 서사문학적 위상 |
| II. ‘복수설 유형’의 층위와 전승양상 | V. 마무리                 |
| III. ‘복수설 유형’의 소설적 변용  |                        |

## I. 들머리

우리 서사문학사의 흐름에서 볼 때, 설화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중세 해체기의 긴장과 갈등을 반영하며 약진의 계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1)</sup> 특히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유포된 설화는 조선후기의 변모된 사회상을 반영한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하는바, 이들은 설화가 특정 시기의 구체적 경험상과 밀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조선후기의 설화는 야담으로 지칭되

\* 이 논문은 2004년 부산대학교 Post-Doc.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강사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신동훈, 『민담의 세계』, 『한국구비문학의 이해』(강동학 외), 월인, 2000, 144~147쪽.

는 문헌설화와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 소설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소설의 형성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해 왔다. 그런 만큼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서사문학 내부에서 진행된 갈래간 교섭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중세 해체기의 긴장과 갈등을 다각적으로 드러낸 일종의 경험적 서사체가 구비설화·야담·고소설·신소설 등으로 장르확산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생산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합당한 자료가 바로 推奴說話의 일종인 ‘복수설 유형’이다.

추노설화는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노비의 신분해방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추노설화는 대략 ㉠주인이 몰락하자 노비가 도망감,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감, ㉢노비가 주인을 죽이려고 함, ㉣주인이 여러 방법으로 피살 위기를 벗어남, ㉤주인이 추노에 성공하거나 실패함 등의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인은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노비를 찾아갔지만, 도망노비는 이미 신분을 冒稱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주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도망노비가 주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은 자신들이 이룬 경제적 富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함이고 다시 노비의 신분으로 환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속박과 굴레로부터의 자유, 그 목숨보다 소중한 신분해방을 위해 도망노비들은 주인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sup>2)</sup>

그런데 대부분의 추노설화가 이와 같은 서사적 특징과 주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 ‘복수설 유형’은 이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추노설화

2) 추노설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명기, 『奴-主의 어울림과 맞섬』, 『한국언어문학』~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 김석배, 『推奴系 漢文短篇 研究』, 『문학과 언어』~제7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 김정석,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분대립 고찰』, 『계명어문학』~제5집, 계명어문학회, 1990 :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초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동간행위원회), 세종출판사, 1995, 451~481쪽.

가운데서도 ‘복수설 유형’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가장 극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주인 父子와 도망노비의 2대에 걸친 갈등을 그려냄으로써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곳곳에서 빈발했던 主-奴의 신분갈등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복수설 유형’은 추노설화 가운데 유일하게 소설로의 이행 과정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어서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더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복수설 유형’이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이명학<sup>3)</sup>이 訥隱 李光庭(1674~1756)의 <復讐說>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이래로, 이현홍<sup>4)</sup>은 신분갈등형 송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복수설>과 <신계후전>을 대비적으로 검토하였고, 정준식<sup>5)</sup>은 <복수설>의 소설적 변용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모두 이광정의 <복수설>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복수설 유형’의 전체적인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복수설>의 소설적 변용에 관한 논의에서도 ‘복수설 유형’의 다채로운 전승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복수설>과 일부 소설만을 대비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실상에 부합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이광정의 <복수설>은 조선후기 민중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승된 ‘복수설 유형’의 한 각편에 불과하다. 때문에 <복수설>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어떤 경우든 지엽적인 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복수설>이 ‘복수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편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기존 논의가 지닌 한계는 더욱 명료해진다. 한편, <복수설>의 소설화와 관련해서는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살신성인>, <삼강문> 등의 추노계 소설이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박만득전>이란 작품이 새로 소개되면서,<sup>6)</sup>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정에

3) 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제23집,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29~37쪽.

4) 이현홍, 「신분갈등형 송사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부산한문학연구』 제8집, 부산한문학회, 1994, 173~231. 이 논문은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313~225쪽에 재수록됨.

5)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제15집, 한국문학회, 1994, 185~205쪽 및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와 <살신성인>」, 『한국문학논총』 제19집, 한국문학회, 1996, 239~257쪽.

관해서도 부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복수설 유형’의 전승양상과 소설적 변용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의 대상 자료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추노설화의 하위 유형을 이루는 ‘복수설 유형’의 특징과 전승양상을 검토하고 ‘복수설 유형’의 소설적 변용 과정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복수설 유형’이 지니게 될 위상을 몇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 II. ‘복수설 유형’의 층위와 전승양상

‘복수설 유형’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이야기로서 推奴說話의 한 하위 유형에 해당된다.<sup>7)</sup> ‘복수설 유형’은 여타의 추노설화와 함께 조선후기 신분제의 이완 및 해체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로서 私奴婢의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구비와 문헌으로 전승되어 온 ‘복수설 유형’의 각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復讐說> : 李光庭, 『訥隱集』卷6 雜著.
- (2) <곽씨 정문의 유래> : 『한국구비문학대계』5-7, 133~134쪽.
- (3) <현풍 곽진사 이야기> : 『한국구비문학대계』8-5, 570~579쪽.
- (4) <중의 딸과 결혼한 곽진사 아들> : 『한국구비문학대계』7-9, 1062~1073쪽.

---

6) 조재현, 「<박만득전>과 추노계 소설의 비교 연구」, 『국민어문연구』제8집,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115~139쪽.

7) 정준식은 推奴說話의 하위 유형을 勇力型·機智型·復讐型·和解型·批判型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한 바 있다[정준식(1995), 앞의 논문, 451~481쪽]. 본고에서 사용되는 ‘복수설 유형’이란 위에 든 추노설화의 하위 유형 중에서 ‘복수형’을 가리킨다. ‘복수설 유형’의 각편 가운데 訥隱 李光庭(1674~1756)의 <復讐說>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고 題名에 작품의 특징이 함축되어 있기에 이를 유형 명칭으로 삼는다.

- (5) <상전 아덜과 종> : 『임석재전집』4, 『한국구전설화』~강원도 편, 273~275쪽.
- (6) <남편을 위해 진정을 버린 열녀> : 『한국구비문학대계』~3-3, 533~540쪽.
- (7)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 『한국구비문학대계』~7-10, 447~460쪽.
- (8)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 : 『한국구비문학대계』~8-5, 570~579쪽.

위에 든 자료는 추노설화의 일종인 ‘복수설 유형’의 각편들이다. 이들 중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 각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복수설 유형’은 도망노비를 추쇄하러 간 주인이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어린 아들이 부친의 행방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가 8편이나 채록된 점으로 보아 ‘복수설 유형’은 조선 후기 민중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전승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문헌에 정착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訥隱 李光庭(1674~1756)이 남긴 <復讐說>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수설>은 이광정이 18세기 당시 세간에 널리 떠돌던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다. 그가 이야기의 말미에서 “但其事出於傳聞 不知其是與否 而傳之者 愈多愈久而無異口 豈虛也哉”<sup>8)</sup>라고 한 점으로 보아 ‘복수설 유형’은 이미 18세기 당시에 뚜렷한 유형적 특징을 갖춘 채 널리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복수설>의 줄거리를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도망노비를 찾아간 주인이 노비에게 살해되다.
- ㉡ 주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묻고 집을 나서다.
- ㉢ 한 선비에게 의탁하여 지내다가 노비의 딸과 결혼하다.
- ㉣ 노비가 주인 아들의 신분을 알고 몰래 살해음모를 꾸미다.
- ㉤ 노비의 딸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 아들을 탈출시키다.
- ㉥ 주인 아들이 官에 告變하여 반노들을 처벌하다.

이광정의 <복수설>은 모두 여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8편

8) 李光庭, 『訥隱集』~卷6 雜著. 여기서는 金泳 編, 『訥隱集』~一, 啓明文化社, 1988, 428쪽을 인용한 것이다.

의 각편 가운데 위의 단락 ㉑~㉔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은 (1)(2)와 (6)~(8)이다. 그런데 각편 (6)~(8)에는 (1)(2)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세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편 (3)~(5)는 위의 단락 ㉑~㉔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지만 ㉕~㉗부분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여타의 각편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복수설 유형’은 (1)(2)를 포괄하는 첫째 층위, (3)~(5)를 포괄하는 둘째 층위, (6)~(8)을 포괄하는 셋째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처음 ‘복수설 유형’이 생겨날 당시에는 단일 내용이었겠지만, 그것이 구비 혹은 문헌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층위를 달리하는 각편들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세 층위가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를 중심으로 각 층위별 특징과 전승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층위를 대표하는 각편은 (1)(〈復讐說〉)이다. (1)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문헌에 올라있는 작품인데, 이를 기록한 이광정(1674~1756)의 생몰 연대로 볼 때 적어도 18세기 초반에는 (1)의 바탕이 된 이야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편 (1)의 서사골격은 19C 후반에서 20C 초반 사이에 창작된 여러 편의 推奴系 小説에도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어서, 각편 (1)이 추노설화의 소설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각편 (2)는 제보자가 이야기를 상세히 구술하지 않아 구성이 영성하고 단조롭지만, 구술된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각편 (1)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층위의 각편들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둘째와 셋째 층위의 각편들에 비해 설화적 부연이 적고 조선후기 推奴의 현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 놓았기 때문에 ‘복수설 유형’ 중에서 ‘기본형’으로 볼 수 있다.

기본형이 ‘복수설 유형’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곳에는 ‘복수설 유형’의 초반부를 이루는 몇몇 삽화들이 생략되어 있다. 즉, 기본형에는 뒤에서 검토될 변개형과 확대형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인의 몰락에 따른 노비의 도망과정, 주인 아들의 성장과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구비로 전승되던 ‘복수설 유형’을 문헌에 기재한 이광정이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첫머리를 “嶺之士人 有推湖南奴者 沒不還”<sup>9)</sup>으로 간략히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李光庭의 〈復讐說〉은 安錫傲(1718~1774)

9) 金泳 編, 『訥隱集』, 啓明文化社, 1988, 425쪽.

의 《雪橋漫錄》에 수록된 <有窮士推叛奴>, 辛敦復(1692~1779)의 《鶴山閑言》에 수록된 <京中士人沈姓者>와 함께 18세기 당시에 발생되었을 법한 동일한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다. 세 작품 모두 ‘도망노비를 찾아간 주인이 그들에게 피살될 위기에 처했다가 노비 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官에 고변하여 노비들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이 이를 방증해 준다. 그런데 <有窮士推叛奴>, <京中士人沈姓者>는 <복수설>과 달리 주인 父子의 2대에 걸친 노비와의 갈등을 주인에게 국한된 당대적 사건으로만 설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복수설>에 비해 구성이 단조로울 뿐 아니라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 대한 주인 아들의 복수’라는 주제적 의미도 퇴색되어 있다.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복수설 유형’이 활발하게 전승되던 18세기 당시에 ‘복수설 유형’의 자장에서 얼마간 벗어난 각편들도 파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형은 조선시대의 주된 노비소유주였던 양반의 입장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그곳에는 주도갈등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주인을 살해한 노비를 끝까지 추적하여 복수를 실현한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나아가 여기에는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을 살해하려 한 逆奴와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을 살려낸 忠婢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逆奴는 官에 의해 준엄하게 처벌되고 忠婢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녀로 칭송된다.<sup>10)</sup> 이를 통해 기본형은,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고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게는 恩典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교화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형은 ‘복수설 유형’의 전승 주체가 양반일 경우, 중세 신분제의 지속을 염원하는 그들의 소망적 사고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굴절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층위를 대표하는 각편은 (3)(<현풍 광진사 이야기>)이다. 각편 (3)~(5)는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5)는 (3)(4)에 비해 내용이 간략하고 결말부가 미약하게 처리되어 있다. 변개형의 공통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복수설 유형’의 문헌 정착본이라 할 수 있는 이광정의 <復讐說>, 안석경의 <有窮士推叛奴>, 신돈복의 <京中士人沈姓者> 등에 이러한 결말 방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 잘 살던 주인이 망하자 노비들이 몰래 도망가다.
- ㉡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갔다가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다.
- ㉢ 주인의 어린 아들이 성장하여 서당에 다니다.
- ㉣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묻고 노비를 찾아 나서다.
- ㉤ 노비의 집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노비의 딸과 결혼하다.
- ㉥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후원의 연못을 뚫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다.
- ㉦ 몰래 노비의 집을 나와 떠돌다가 한 고개에서 부친의 흔적을 발견하다.
- ㉧ 어느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연명하던 아버지를 만나다.
- ㉨ 아버지를 모시고 노비의 집으로 가서 노비와 사돈관계를 맺고 잘 살다.

둘째 층위의 각편들이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와 셋째 층위와는 달리 노비를 찾아간 주인이 그들에게 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비는 자신을 찾아 온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보냈기 때문에 주인과 노비 사이에는 대립·갈등이 나타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사라지고 만 셈이다. 둘째 층위의 각편에는 앞서 제시한 <복수설>의 단락 중에서 ㉠~㉢까지만 수용되어 있고 ㉣~㉨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락이 놓일 자리에는, 노비의 딸과 결혼한 주인의 아들이 妻家를 나와 떠돌다가 어느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연명하고 있는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 다시 처가로 모시고 가서 노비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산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둘째 층위의 각편들은 기본형에 비해 주인과 노비의 첨예한 갈등을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니 ‘복수설 유형’ 중에서 ‘변개형’으로 볼 수 있다.

구비설화가 문헌설화에 비해 민중의식을 보다 꺾진하게 반영한다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보면 변개형을 ‘복수설 유형’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주인과 노비의 갈등보다 둘 사이의 화해와 공존 속에서 노비의 신분해방이 목인되는 모습이 조선후기 하층민들의 열망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노설화는 원래 도망노비의 추쇄에 따른 主-奴의 대립·갈등을 다룬 것이기에, 주인과 노비 사이의 갈등을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전환시킨 변개형을 ‘복수설 유형’의 원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개형은 일반 민중의식을 질게 반영한 이야기이다. 그곳에는 신분해방에 대한 노비들의 열망과 이를 쉽게 허용하는 주인의 관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주인은 가난을 견딜 수 없어 노비를 찾아간 것이고, 노비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간 것이다. 때문에 노비는 주인에게 돈을

제공하고 주인은 노비에게 신분적 자유를 보장해 주면 주노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변개형의 주인과 노비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주인은 도망노비의 신분해방을 인정해 주고 노비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주인과 노비는 공존을 모색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민중의 소박한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다소 허술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을 화해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변개형의 전승 주체야말로 주노갈등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역사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개형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 조선후기 하층민의 신분해방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층위를 대표하는 각편은 (6)(<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이다. 셋째 층위의 각편들도 앞서 검토된 <복수설>의 단락 ㉠~㉣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수설>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군데군데 있으니, 주인의 몰락과 노비의 도망과정, 주인 아들의 출생과 성장과정, 주인 아들이 육지로 탈출하는 과정, 주인 아들이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암행어사가 되어 직접 노비를 다스리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셋째 층위의 각편은 첫째 층위의 각편에 비해 설화적 부연과 새로운 상황 설정이 많기 때문에 ‘복수설 유형’ 중에서 ‘확대형’으로 볼 수 있다. 확대형의 공통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잘 살던 주인이 망하자 노비들이 몰래 도망가다.
- ㉡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갔다가 그들에게 살해되다.
- ㉢ 주인의 어린 아들이 성장하여 서당에 다니다.
- ㉣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묻고 노비를 찾아 나서다.
- ㉤ 노비의 집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노비의 딸과 결혼하다.
- ㉥ 노비가 주인의 아들임을 알고 몰래 죽이려 하다.
- ㉦ 노비의 딸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의 아들을 살려내다.
- ㉧ 서울에서 시집 온 재상 딸의 도움으로 주인의 아들이 탈출하다.
- ㉨ 주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다.
- ㉩ 주인의 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노비를 처벌하다.

위에 제시된 단락은 확대형의 모든 각편에 공통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확대

형의 서사단락 중에서 ㉠㉡㉢㉣㉤㉥은 기본형을 대표하는 <복수설>의 서사단락 ㉦~㉧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확대형은 <복수설>에 나오지 않는 ㉨㉩㉪㉫단락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여기서는 단락 ㉦㉧㉨㉩을 통해 확대형이 기본형을 대표하는 <복수설>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락은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가게 된 동기를 밝힌 부분이다. 확대형의 모든 각편에는 주인이 정승을 지낸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sup>11)</sup> 그런데도 주인은 궁핍함을 면할 수 없을 만큼 몰락을 겪게 되고, 이를 틈타 노비들은 주인 몰래 도망을 간다.<sup>12)</sup>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도망노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推刷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노비들은 자유를 위해 도망을 간 것이고, 도망한 후에는 그들의 바램처럼 양반행세를 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런 노비에게 느닷없이 주인이 찾아왔으니 큰 변고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노비가 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두 가지다. 즉 주인에게 贖良價를 바치고 양민이 되거나 다시 노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해마다 身賁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노비들은 합법적인 방법 대신 주인 살해라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처럼 확대형은 주인이 노비 추쇄를 나가게 된 동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인이 도망노비에게 피살되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단락은 주인 아들의 성장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주인 아들은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간 후에 태어난 유복자로서 애초부터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자라게 된다. 그러다가 서당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 놀림을 받게 되자, 자기에게만 아버지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애석해한다. 이처럼 주인 아들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단락을 설정함으로써, 주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관해 관심을 갖는다든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묻고 원수를 갚기 위해 노비를 찾아가게 된 동기를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단락은 확대형만의 특징이 아니라, 기본형을 제외

11) 각편 (6)(7)에는 ‘이정승’으로, (8)에는 ‘김정승’으로 소개되어 있다.

12) 각편 (6)(8)에는 노비가 주인을 피해 멀리 도망하여 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비해 (7)에는 오히려 주인이 노비의 등살을 못 견뎌 집을 떠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 ‘복수설 유형’의 모든 각편에 두루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두 단락이 기본형에만 생략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구비로 전승된 각편에는 단락 ㉠㉡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유독 문헌으로 전승된 <복수설>에만 이 부분이 없다는 사실은 ‘복수설 유형’의 전승이 구비와 문헌으로 이원화되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원래 ㉠㉡단락은 ‘복수설 유형’이 형성될 당시부터 갖추어져 있었는데, 18세기 당시 이광정이 ‘복수설 유형’에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복수설>이란 제명으로 문헌에 기재하면서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락은 도망노비의 사위가 된 주인 아들이 노비들의 살해 위협을 가까스로 모면한 다음 서울에서 시집온 정승 딸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부분이다.<sup>13)</sup> 가장 이른 시기의 각편인 <復讐說>에는 노비 딸의 도움으로 피살 위기를 모면한 주인 아들이 곤장 노비들의 거주지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復讐說>의 구조를 수용한 대부분의 추노계 소설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주인 아들이 노비 딸의 도움으로 피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은 기본형과 확대형의 모든 각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비의 집을 도망쳐 나온 주인 아들이 정승 딸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는 장면은 확대형에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단락은 ‘복수설 유형’의 전승 과정에서 후대에 이르러 새로 덧붙여진 것이 분명하다. 확대형의 서사문맥에서 보면, 주인 아들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섬에는 叛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아들이 혼자서 배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대형에 ㉢단락이 설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는 바, ㉢단락을 통해 주인 아들의 탈출 과정을 무리 없이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확대형은 ㉢단락을 설정하여 노비들과 주인 아들의 쫓고 쫓기는 상황을 박진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여타의 각편들에 비해 推奴를 둘러싼 主-奴의 갈등을 효

13) (3)에는 서울에서 시집 온 이정승의 딸로 소개되어 있고, (4)에는 서울에서 시집 온 김정승의 딸로, (5)에는 낙향한 재상댁의 새 며느리로 소개되어 있다. (3)(5)에는 주인 아들이 정승 딸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노비들이 사는 곳이 섬임을 알 수 있는데, (4)에는 노비들이 사는 곳이 섬이라는 단서가 없다.

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단락은 육지로 탈출한 주인 아들이 노비들을 징치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부분이다. 주인 아들은 자신의 탈출을 도운 정승 딸의 배려로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를 제수 받는데, 이는 노비에게 직접 복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힘의 확보인 셈이다. ‘복수설 유형’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각편인 <復讐說>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살 위기를 모면한 주인 아들이 곧바로 관의 힘을 빌려 노비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 방식은 기본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원래 ‘복수설 유형’의 결말은 관의 힘을 빌려 노비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sup>14)</sup> 때문에 주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다음 직접 노비를 처벌하는 결말방식은 확대형에 와서 나타나게 된 후대적 변이로 볼 수 있다.

확대형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 설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야기이다. 도망 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主-奴의 대립·갈등이야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선악관념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에서 확대형은 다른 두 유형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노비와의 갈등에서 위기에 처한 주인 아들은 노비 딸의 희생과 정승 딸(며느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며, 훗날 그는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직접 노비를 처벌하게 된다. 이처럼 확대형에는 노비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주인 아들의 편에 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노비는 철저히 악인으로 규정되어 준엄한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노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암행어사 출도’라는 다소 과장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비설화에 간혹 나타나는 ‘암행어사 출도’는 보통 약자인 민중의 고난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확대형에 동원된 ‘암행어사 출도’는 노비의 악행을 징치하고 신분제의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대형은 노비추쇄를 둘러싼 主-奴의 대립·갈등을 선악관념에 따라 재단함으로써 권선징악이라는 소박한 민중의식을 드러내는 쪽으로 굴절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확대형에서는 노비의 신분

14) 추쇄 나온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를 관에서 준엄하게 처벌하는 예는 비단 ‘복수설 유형’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추노설화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결말 방식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조선장관권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세종출판사, 1995, 451~481쪽.

해방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 그가 행한 악행에 가려져 정당한 의의를 지니기 어렵다.

### Ⅲ. ‘복수설 유형’의 소설적 변용

앞서 검토된 ‘복수설 유형’은 단순히 설화로만 전승되는 데 머물지 않고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설 유형’의 세 층위를 이루는 기본형·변개형·확대형이 추노계 소설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복수설 유형’의 소설적 변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기본형은 ‘복수설 유형’의 세 층위 가운데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소개된 추노계 소설에는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살신성인>, <삼강문>, <박만득전>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본형을 대표하는 <復讐說>의 서사구조를 공통적으로 물려받고 있다. <살신성인>은 <復讐說>의 서사구조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작품이고, <김학공전>은 <復讐說>의 서사구조를 적절히 변용한 작품이다. 두 작품은 <복수설>을 근간으로 취하고 거의 동시대에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세부 묘사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살신성인>과 <김학공전>이 널리 알려진 후에는 두 작품을 개작하거나 개작한 작품을 다시 개작하는 일이 거듭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추노계 소설은 <살신성인>→<삼강문>으로 이어지는 한 계열과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다른 한 계열로 전승되어 왔다. 전자는 <복수설>의 구조를 단순 수용한 것이기에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이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배인자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가내 노비의 모반에 따른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배인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 작품에 새로 설정된 사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5)</sup>

15) 정준식,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 박사논문, 1998.

변개형도 설화로만 전승되는 데 그치지 않고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필자는 <살신성인>이 <복수설>의 서사구조를 근간으로 삼은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살신성인>이 <복수설>의 서사단락을 모두 지니고 있기에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살신성인>은 단순히 <복수설>만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개형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변개형에는 기본형에 없는, 주인의 몰락에 따른 노비의 도망과정(㉠)과 주인 아들의 성장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두 단락이 설정됨으로써 변개형은 기본형에 비해 논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짜임새를 보인다.

그런데 변개형에 나오는 ㉠㉡단락은 확대형과 <살신성인>에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복수설 유형’ 중에서 유독 기본형을 대표하는 <복수설>에만 이 부분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래 ‘복수설 유형’에는 ㉠㉡단락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광정이 이 이야기를 듣고 <復讐說>이란 제명으로 문헌에 기재하면서 누락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단락은 변개형·확대형·<살신성인>에 모두 나오지만, 주인을 ‘현풍에 사는 곽씨(또는 곽진사)’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변개형과 <살신성인> 뿐이다. 따라서 <살신성인>에 설정된 ㉠㉡단락은 변개형의 해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신성인>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 기본형을 대표하는 <복수설>의 서사구조를 근간으로 삼는 한편 변개형에서 여러 삽화를 취하여 만든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설화에서 물려받은 것 외에 이렇다할 독창적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소설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살신성인>은 <복수설>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적인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복수설>은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 대한 주인 아들의 복수’를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은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문헌에 수록한 이광정이 제명을 ‘복수이야기(復讐說)’로 삼은 것을 보아도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살신성인>은 ‘주인 아들이 어떻게 死地에서 벗어났느냐’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여기에는 주인을 살린 반노 딸의 열행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다. <살신성인>의 작자는 곽동의

복수가 궁극적으로 반노 딸의 열행 때문에 가능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殺身成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주제적 의미는 <살신성인>을 개작한 <삼강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삼강문>의 전반부는 작가 최찬식이 창작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살신성인>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다. 전반부에는 부모 세대의 주노관계가 조화로운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노비 정안동의 신분해방을 위한 노력과 그 실현과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자식 세대의 주노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환원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부에서 애써 이룩한 노비의 신분해방이 좌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확대형 또한 소설의 형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확대형은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김학공전>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필자는 <복수설>을 근간으로 삼은 소설을 <살신성인>계열과 <김학공전>계열로 나누었는데, 두 계열은 초반부의 상황설정은 물론 후반부의 갈등해결 과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살신성인>계열에서는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감으로써 主-奴의 갈등이 비롯되는 데 비해, <김학공전>계열에서는 노비가 가내에서 모반함으로써 主-奴의 갈등이 비롯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살신성인>계열에서는 주인 아들이 官의 힘을 빌려 노비들을 징치하는 데 비해, <김학공전>계열에서는 주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監司나 御使가 된 다음 직접 노비들을 징치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sup>17)</sup> 이런 차이가 발생된 궁극적인 원인은 <살신성인>계열이 <복수설>의 구조를 단순 수용한 것임에 비해 <김학공전>계열은 그것을 변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학공전>계열의 초반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내 노비의 모반에 따른 주노갈등’은 원래 <김학공전>의 작자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 후에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개작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별다른 변개 없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아무리 몰락한 양반이라 하더라도 도망간 노비에게 드러내놓고 구걸하는 행위를 결코 못

16) <삼강문>은 최찬식이 창작한 작품이고 1918년에 덕흥서림에서 간행되었다. 현재 이 작품은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7) <탄금대>를 제외한 <김학공전>, <신계후전>, <박만득전> 등이 모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몇한 일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터, <김학공전>의 작자는 바로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법하다. 그래서 주노갈등의 원인을 ‘추노’가 아닌 ‘가내 노비의 모반’으로 변개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주인에서 노비로 전가되는 셈이다. ‘추노’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전통적 신분제를 고수하려는 주인과 자유를 쟁취하려는 노비의 입장이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독자로서도 쉽게 어느 한 편을 두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내 노비의 모반’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노비의 악행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주인은 선량한 피해자로 비취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주인이 악한 노비를 징벌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김학공전>계열은 후반부의 서사세계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박만득전>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않는다. 노비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감사나 어사가 된 다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직접 노비들을 처벌하는 대목은 <김학공전>, <신계후전>, <박만득전>에만 나타나며 <탄금대>의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8)</sup>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현실적인 힘을 확보한 후에 직접 노비를 처벌하는 대목’은 추노계 소설 가운데 <김학공전>에서 처음 마련된바, 이 부분은 앞장에 제시된 확대형의 ㉔㉔ 단락과 흡사하다. ‘복수설 유형’의 오랜 연원과 전승맥락을 고려할 때, 확대형에 나오는 주노갈등의 해결방식이 <김학공전>에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9)</sup> 확대형의 세 각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급제를 통한 갈등 해결’이

18) <탄금대>는 <신계후전>의 구조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이해조가 새로 설정한 ‘박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 과정’에 초점이 놓여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해조는 喪妻한 박만득과 喪夫한 채혜강의 결연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再嫁의 당위성’이라는 개화·계몽 담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관례로 이 작품에는 主·奴의 첨예한 대립·갈등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과정이 작위적이고 어설피게 그려져 있다.

19) 구비 추노설화 중에는 <김학공전>을 읽고 그 줄거리를 구연한 이야기도 있다. <죽음으로 신랑을 구하고>(대계 7-1), <비란이 이야기>(대계 8-6), <충효열>(임석재 전집 7)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처럼 소설을 읽고 그 줄거리를 구연한 소위 ‘소설계 설화’는 일반 구비설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확대형의 각편을 이들과 비교해보면 확대형은 소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한 구비설화임이 자명해진다.

라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김학공전>에 수용된 이와 같은 갈등해결 방식은 <신계후전>, <박만득전>에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대형의 서사단락 중 일부는 <박만득전>에도 수용되어 있다. <박만득전>은 최근에 소개된 작자 미상의 국문 필사본 소설이다.<sup>20)</sup> 이 작품은 노비의 모반에 따른 主-奴의 대립·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살신성인>, <삼강문> 등과 함께 추노계 소설로 분류된다. <박만득전>은 여타의 추노계 소설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이 작품이 마치 확대형·<김학공전>·<탄금대> 등의 내용을 모자이크 식으로 결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만득전>의 형성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복수설 유형’의 각편 중에서는 확대형에 속하는 (6)(7)(8), 즉 <남편을 위해 진정을 버린 열녀>,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 등이 <박만득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검토한바, 확대형의 갈등해결 부분(㉠~㉢단락)은 기본형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중에서 단락 ㉢, 즉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고 그 힘으로 노비를 직접 처벌하는 대목은 <김학공전>, <신계후전>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단락 ㉠~㉢까지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소설은 <박만득전>뿐이다. 노비에게 피살될 위기를 벗어난 주인공이 섬으로 시집 온 재상댁 자부의 도움으로 육지로 탈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단락 ㉠은 ‘복수설 유형’ 가운데 확대형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부분이 <박만득전>에도 고스란히 수용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박만득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主-奴 갈등의 해결 부분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도 확대형의 단락 ㉠~㉢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확대형의 각편 (6)(7)(8)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것임에도 공통된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점, 확대형의 단락 ㉠~㉢이 <박만득전>에 수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확대형과 <박만득전>

20) 조재현, 『<박만득전>과 추노계 소설의 비교 연구』, 『국민어문연구』 제8집,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115~139쪽.

이 구성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박만득전>이 향간에 널리 유포된 소설은 아니라는 점<sup>21)</sup> 등을 감안한다면, 확대형이 <박만득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박만득전>은 <김학공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폈듯이 <박만득전>이 ‘복수설 유형’ 중에서도 확대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갈등의 해결 부분에 국한된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박만득전>과 확대형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보인다. <박만득전>은 서두부의 문제적 상황을 ‘가내 노비의 모반에 따른 殺主事件’으로 설정해 놓았고, 주인의 자식을 獨자가 아닌 남매로 설정하여 두 남매의 이합과정을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놓았다. 설화에는 나오지 않는 <박만득전>의 이러한 면모는 <김학공전>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인공의 행적을 영웅의 일생 구조에 부합되게 그리면서 主-奴의 대립·갈등을 핵심 서사로 삼은 점, 주인공 남매의 이별·고행·재회를 통해 가문의식을 고취한 점 등은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김학공전>만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는데, <박만득전>은 <김학공전>의 이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박만득전>은 <탄금대>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탄금대>와 <박만득전>은 주인공을 ‘박만득’으로 설정한 점, 노비의 모반으로 집을 나온 주인공이 고금도<sup>22)</sup>·연광정·탄금대로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차례로 세 여인을 만나지만 탄금대에서 만난 여인과 진정한 인연을 이룬다는 점, 모반한 노비를 처벌하는 대신 관용을 베푼다는 점등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탄금대>는 박만득과 세 여인의 만남이 통도사 주지승인 운유암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놓은 점<sup>23)</sup> <박만득전>과 다를 뿐이다. 두 작품이 보이는 이러한 유사성을 감안해볼 때 <박만

21) 현재까지 소개된 <박만득전>의 이본은 홍윤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국문 필사본 1종이 유일하다. 설사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더라도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22) 주인공이 첫 번째 여인을 만나는 공간적 배경을 <탄금대>에는 ‘고금도’로, <박만득전>에는 ‘거제도’로 설정해 놓았다.

23) “고금도 달밤에 원수가 은인이 되고, 연광정 가을바람에 잠간 거짓 인연을 만나고, 탄금대 저녁 별에 우연히 길인을 만나 다니라.”

득전>은 ‘복수설 유형’의 확대형과 <김학공전>보다는 <탄금대>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만득전>은 推奴를 둘러싼 主-奴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전대의 설화 및 소설로부터 대부분의 삽화들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대형·<김학공전>·<탄금대>보다는 후대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김학공전>이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이 1923년이고<sup>24)</sup> <탄금대>가 1912년에 창작·간행되었으니, <박만득전>의 창작시기는 빨라도 1923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IV. ‘복수설 유형’의 서사문학적 위상

‘복수설 유형’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빈발했던 도망노비의 추쇄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제에서 볼 때 노비의 도망은 분명 불법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하게 된 원인은 ‘노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낳은 주인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듯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주인의 일방적인 명령에 노비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상 존재한 가장 극단적인 지배관계라 할 수 있다.<sup>25)</sup> 중세 신분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망노비

24) <김학공전>은 한국 배경의 이본과 중국 배경의 이본으로 구분된다. 한국 배경의 이본에는 주인공을 제외한 주인 가족이 모두 노비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그려 놓았기 때문에 주인공과 여동생의 이합 과정이 나타날 수 없다. 이에 비해 중국 배경의 이본에는 주인공의 母와 여동생이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주인공과 다시 만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한국 배경이 ‘복수설 유형’에 근거를 두고 주-노의 대립·갈등과 복수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중국 배경은 주인공의 행적을 영웅소설의 구조에 합치시켜 놓았으며, 서사의 핵심도 가족의 이합과 가문회복에 맞추어져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정준식, 『<김학공전> 이본 재론』,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287~315쪽). 때문에 <박만득전>에 나오는 가족의 이합과 가문회복은 중국 배경의 <김학공전>에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만득전>의 작자는 1923년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중국 배경의 활자본 <김학공전>을 읽고, 그 중의 일부 삽화를 <박만득전>에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를 끝까지 추적·체포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주인의 입장이 긍정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인간적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비의 도망이 긍정될 수 있다. ‘복수설 유형’의 전승주체들은 상이한 전승의식에 따라 혹은 주인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혹은 노비의 편을 들기도 했다.

기본형에는 주인의 입장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는 관에 의해 가차없이 처벌된다. 이를 통해 기본형은 노비제의 동요 및 해체를 원치 않던 조선후기 양반들의 보수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변개형에는 노비의 입장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노비의 신분해방이 주인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주인과 노비가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변개형은 노비의 신분해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전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확대형에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입장이 강조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서사가 선악관념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흥미를 유발하는 설화적 부연이 많은데, 노비의 악행이 크게 부각된 만큼 노비에 대한 주인의 복수도 과장되게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설화적 부연을 통해 확대형은 권선징악이라는 전승집단의 소박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설 유형’은 도망노비의 추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는 양반의식과 민중의식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교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복수설 유형’은 중세해체기의 혼란상을 主-奴의 관계를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비의 도망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두고 ‘복수설 유형’의 전승집단이 서로 다른 인식과 대응방식을 드러낸 것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 및 해체과정에서 주인과 노비가 겪어야 했던 현실적 혼란과 갈등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수설 유형’은 노비의 도망과 그로 인한 신분해방을 긍정하기보다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가 처벌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중세해체기의 혼란 속에서 노비의 신분해방이 전통적인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25)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279쪽.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복수설 유형’의 기본형·확대형은 노비의 신분해방이라는 절실한 과업이 허구적 서사에서마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조선후기 私奴婢들에게 전망의 부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변개형은 주인과 노비가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조선후기 노비계층의 현실적 바람이었던 신분해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복수설 유형’의 전승 공간은 노비의 신분해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지닌 전승집단이 모여 진지하게 담론을 펼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수설 유형’은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이루어진 갈래교섭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복수설 유형’이 전승되던 18, 9세기는 소설이 성행한 시기이다. 우리 소설은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모색을 통해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성장은 18, 9세기의 소설 대중화를 推動해간 원동력으로 작용되었다. 소설이 조선후기 문학사의 주류로 부상하자 설화, 야담, 전, 일화, 가사 등의 인접장르가 소설과 교섭하는 일도 잦아지는데,<sup>26)</sup> ‘복수설 유형’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소설과 교섭하여 6편의 추노계 소설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를 직접 수용한 소설은 <김학공전>과 <살신성인>이다. 두 작품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도 기본형의 서사구조를 물려받고 있는데, <살신성인>은 기본형의 구조를 단순 수용한 것이고 <김학공전>은 기본형의 구조를 변용한 것이다. 두 작품은 ‘복수설 유형’을 근간으로 삼은 것이기에 ‘설화의 소설화’에 해당된다. 그런데 추노계 소설은 설화의 소설화라는 방법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은 아니다. <살신성인>은 이후에 <삼강문>으로 개작되고, <김학공전>은 <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개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삼강문>, <신계후전>, <탄금대>, <박만득전>

26)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129~404쪽 ;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1~182쪽 ; 이강옥,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366~369쪽 ;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271~301쪽.

은 ‘전대 소설의 개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추노계 소설은 ‘설화의 소설화’와 ‘전대 소설의 개작’이라는 두 방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학공전>계열의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박만득전>은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작가의 상이한 의도에 따라 지향점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김학공전>은 主-奴의 대립·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노비에 대한 주인의 복수를 일관되게 그린 소설이고, <신계후전>은 主-奴의 갈등보다 남녀주인공의 혼사장애와 그 극복과정을 중심 문제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그리고 <탄금대>는 주인공과 세 여인의 결연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어 개화·계몽의식을 담아낸 소설이며, <박만득전>은 主-奴의 신분갈등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던 시기에 복고풍을 지닌 여성 독자가 전대의 설화 및 소설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만든 소설이다. 이처럼 <김학공전>계열은 모두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신분제가 해체되고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主-奴의 신분갈등은 점차 서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통속적 내용이나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한 서사가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살신성인>계열의 <살신성인>, <삼강문>은 추노를 둘러싼 主-奴의 대립·갈등만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은 소설이다. <김학공전>계열이 추노를 둘러싼 주노갈등의 본질을 은폐한 채 이를 통속적인 복수담·결연담으로 호도하거나 개화·계몽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살신성인>계열의 이러한 면모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살신성인>은 ‘복수설 유형’ 가운데 기본형의 서사구조를 단순 수용한 것이기에 기본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기본형이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 대한 주인 아들의 복수’를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살신성인>은 주인 아들의 복수를 가능케 한 ‘노비 딸의 열행’을 보다 더 부각해 놓은 점이 다를 뿐이다. 이에 비해 <삼강문>은 <살신성인>의 구조를 수용한 것 외에 작가가 새로 창작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신성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삼강문>의 전반부에는 노비 정안동의 신분해방을 위한 열망과 그 성취과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가 최찬식은 노비의 신분해방을 당위적 현실로 구현함으로써 노비문제에 관한 진전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후반부에다 <살신성인>의 내용을 무리하게 수용함으로써, 전반부에서 애써 이룬 노비의 신분해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살신성인>계열은 노비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신분해방은 아직 요원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복수설 유형’은 ‘악노형 인물’의 전형을 창조하여 조선후기 서사공간에 새로운 인물 유형을 제공하였다. ‘복수설 유형’에 등장하는 ‘악노’는 ‘피쟁이 하인 유형’의 ‘애뜨기(막동이)’와 함께 조선후기 구비설화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 유형이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하층민 중에서도 유일하게 주인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비의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세 신분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할 수 있다. ‘악노’는 중세 신분제가 이완 및 해체되어 가던 조선후기에 이르러 노비가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악노’의 악행은 노비 개인의 인성적 결함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노비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중세적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 주인과 투쟁한 행위가 악행으로 규정된 것이라 해야 옳다.

‘복수설 유형’에서 창조된 악노형 인물은 추노계 소설에도 수용된 바,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우리 소설이 신분해방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펼쳤던 ‘악노’를 거부감 없이 끌어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惡奴(惡婢)’를 형상화한 소설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운영전>의 ‘특’, <사씨남정기>의 ‘납매’와 ‘설매’, <창선감의록>의 ‘계향’과 ‘난향’, <숙영낭자전>의 ‘매월’ 등이 이에 해당된다.<sup>27)</sup> 그러나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악노(악비)는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잠시동안 악인의 계략에 동참하는 보조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보조형 악인은 17세기 소설에서부터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아직 인간적 자각에 기초한 개체적 인물로서의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추노계 소설에 등장하는 ‘악노’는 의식적으로 각성한 노비로서, 신분해방에 대한 강한 집

27)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노비의 역할과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정한국, 『《신단공안》 제7화 <어복손전>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60~62쪽 ; 김일렬,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主奴間的 葛藤』, 『어문론총』 28호, 경북어문학회, 1994, 51~58쪽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390~391쪽.

념을 가지고 주인과 극단적으로 투쟁했던 인물이다. 그 투쟁이 노비의 실질적인 신분해방을 가져왔든 그렇지 않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소설에 ‘악노’가 개체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과 극단적인 투쟁을 펼쳐 나간 ‘악노’는 분명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우리 소설이 포착해낸 ‘문제적 개인’이었기 때문이다.

## V. 마무리

본고는 추노설화의 일종인 ‘복수설 유형’이 구비설화·야담·고소설·신소설 등으로 장르확산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생산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복수설 유형’의 특징과 전승양상을 검토하고 ‘복수설 유형’의 소설적 변용 과정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복수설 유형’이 지니게 될 의의를 짚어보았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복수설 유형’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노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이야기인데, 오랜 전승의 과정에서 전승집단의 상이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 기본형·변개형·확대형으로 분화되었다. 기본형은 조선시대의 주된 노비소유주였던 양반의 입장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그곳에는 주도갈등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주인을 살해한 노비를 끝까지 추적하여 복수를 실현한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세 신분제의 지속을 염원하는 양반들의 소망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변개형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된 이야기이다. 주인은 도망노비의 신분해방을 인정해 주고 노비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주인과 노비는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변개형은 조선후기 하층민의 신분해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역사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바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확대형은 ‘복수설 유형’ 중에서 설화적 상상력이 가장 잘 발휘된 이야기이지만, 주-노의 대립·갈등을 선악관념에 따라 재단함으로써 권선징악이라는 소박한 민중의식을 드러내는 쪽으로 굴절되었다.

‘복수설 유형’은 소설로도 이행되어 몇 편의 추노계 소설을 낳았다. 추노계

소설은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김학공전>계열과 <살신성인>, <심강문>으로 이어지는 <살신성인>계열로 구분된다. <김학공전>과 <살신성인>은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를 근간으로 삼은 작품이기 때문에 ‘설화의 소설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두 작품을 개작하거나 개작한 작품을 다시 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 소설의 개작’에 해당된다. 이처럼 추노계 소설은 ‘설화의 소설화’와 ‘전대 소설의 개작’이라는 두 방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광정의 <복수설>을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설화로 전제하여 단선적인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료를 확충하여 ‘복수설 유형’이 기본형·변개형·확대형이라는 세 층위를 중심으로 전승된 사실을 밝히고, 세 층위가 추노계 소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추노계 소설이 기본형을 대표하는 <복수설>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 외에 변개형이 <살신성인>의 형성에, 확대형이 <김학공전>과 <박만득전>의 형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을 새로 확인하였다.

‘복수설 유형’의 서사문학적 의미로는, 조선후기 도망노비의 추쇄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점,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이루어진 갈래교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점, 악노형 인물의 전형을 창조하여 조선후기 의 서사공간에 새로운 인물 유형을 제공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제어 : 추노설화, 신분갈등, 복수설 유형, 노비, 주인, 추쇄, 신분해방, 갈래교섭

## 참고문헌

- <김학공전>(필사본),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4, 보경문화사, 1991,  
<김학공전>(활자본), 『활자본고전소설전집』2, 아세아문화사, 1976.  
<박만득전>(필사본), 홍윤표 교수 소장본.  
<살신성인>, 『제국신문』1906. 10. 22~11. 3.  
<신계후전>(활자본), 『구활자본고소설전집』8, 은하출판사, 1983.  
李光庭, <復讐說>, 金泳 編, 『訥隱集』1, 啓明文化社, 1988, 425~428쪽.  
이해조, <탄금대>, 『한국신소설전집』5, 을유문화사, 1969.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라북도, 평민사, 1989, 273~275쪽.  
최찬식, <삼강문>, 덕흥서림, 1918.(연세대 도서관 소장)  
『한국구비문학대계』5-7, 1980-1987, 133~134쪽.
- 김석배, 『추노계 한문단편 연구』, 『문학과 언어』~제7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374~383쪽.  
김일렬,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主奴間의 葛藤』, 『어문론총』~28호, 경북어문  
학회, 1994, 51~58쪽.  
김정석,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분대립 고찰』, 『계명어문학』~제5집, 계명어문학  
회, 1990,  
신동훈, 『민담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44~147쪽.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이현홍, 『신분갈등형 송사사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부산한문학』~제8집, 부산  
한문학회, 1994, 173~231쪽.  
———,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213~225쪽.  
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제23집, 성대 대동문화연구  
원, 1987, 29~37쪽.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알조각, 1989, 188~201쪽.  
정명기, 『奴-主의 어울림과 맞섬』, 『한국언어문학』~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논총』~제15집, 한국문학회, 1994, 185~206쪽.

\_\_\_\_\_,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조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세종출판사, 451~481쪽.

\_\_\_\_\_,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와 <살신성인>』, 『한국문학논총』~제19집, 한국문학회, 1996, 239~257쪽.

\_\_\_\_\_,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 박사논문, 1998, 45~75쪽.

정환국, 『《신단공안》제7화 <어복손전>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1~90쪽.

조재현, 『<박만득전>과 추노계 소설의 비교 연구』, 『국민어문연구』~제8집,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115~139쪽.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360~366쪽.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389~391쪽.

<Abstract>

The Transmitting Aspect and Fictional  
Change of ‘Various Types of Revenge Story  
(復讐說 類型)’

Jung, Jun-Sik · Lee, Heon-Hong

‘The various types of story’ was a lower level of slave chasing folklore and formed the conflict between owner and slave which contained chasing and capturing the escaping slav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e various types of story’ was on the basis of real happening in the late Chosun. It was divided with three aspects, such as basic, change, expansion according to transmitting consciousness by each different group. And ‘The various types of story’ had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forming the slave chasing story such as 『Kim Hak Gong Chon(김학공전)』, 『Shin Kae Hu Chon(신계후전)』, 『Tan Kum Dae(탄금대)』, 『Park Man Duk Chon(박만득전)』, 『Shal Shin Sung In(살신성인)』 and 『Sam Kang Moon(삼강문)』 and so on.

In the basic type, as it had a focus on the owner’s part, the slave who stood against his owner was punished severely by the government. So the basic type showed the conservative consciousness of the intelligent people who didn’t want the unsettlement and disturbance of slave system.

In the change type, it emphasized the slave’s position. Fleeing slave’s status free was achieved legally under the owner’s admission. Here the owner and the slave kept good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ied to find harmonious relationship and searched for coexistence. So it showed clear thought that the slave had to be free from his owner in the change type.

In the expansion type, basically it emphasized the owner position but it

made the entire narration in view of good and evil. There were folklore additions which motivated many interests. Both the slave's bad behavior and the owner's revenge stood out in it. Therefore, this expansion type story confirmed naive consciousness that encouraged good and punished evil by transmitting groups.

The stories which accepted directly the narrative construct of 'various types of stories' were 『Kim Hak Gong Chon』 and 『Shal Shin Sung In』. Two works inherited from the basic type among them. 『Shal Shin Sung In』 accepted simply the basic type.

『Kim Hak Gong Chon』 changed the construct of basic type. 『Shal Shin Sung In』 was adapted into 『Sam Kang Moon』 later. 『Kim Hak Gong Chon』 had various remaking process succeeding to 『Shin Kae Hu Chon』, 『Tan Kum Dae』, 『Park Man Duk Chon』. Consequently, slave chasing stories were formed by two methods, making the story of folklore, and remaking the former stories.

Key Words : Various Types of Revenge Story, Slaves, Owner, Chase, Conflicts between slaves and the owner, Abolishment of slave system, Mixture of genres